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5호 【루게 제25328호】 주제105 (2016)년 7월 3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을 떠메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육친의 사랑에 떠받들려워 평양중등학원이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볼도 없는 멋쟁이궁전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평양중등학원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각 도들에 원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멋쟁이궁전들로 일떠세워주시는데 이어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형성안을 몸소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학원 교직원들은 숭고한 후대판, 미래판, 친부모의 다심한 사랑,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적 양심을 지니고 원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 세기의 요구와 세계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식료품과 학용품, 생활필수품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 원아들에게 집 단주의 정신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사업 등에 힘을 쏟으며 전국의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들 사이에 교육교양과 학원운영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거듭 거듭 되뇌이시면서 원아들을 위한 보급자리가 또 하나 일떠섬으로써 우리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과시하게 되였다고 금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몇 해 사이에 평양시와 각 도들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과 같은 학원은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붙게 되였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중등학원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역시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창조자들과 함께 일을 잘하고있으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나라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초등학교원건설도 당에서 정해준 날짜에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의 모범을 본받아 각 도들에서도 지금 진행하고있는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건설을 더욱더 태양절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이 훌륭히 건설된것만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원아들을 하루빨리 이사시키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그들의 글씨는 모습도 보고 체육경기도 보여주겠다고, 그날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고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사랄같이 펼쳐나선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건축면적이 2만 4,050여㎡에 달하고 수십개의 교실, 실험실, 실습실이 있는 교사, 수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과 기숙사, 관리건물, 보조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중등학원이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

등학원의 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원하게 잘 잘했다고, 평양중등학원건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썽이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평양시민들이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큰일을 또 하나 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교사, 야외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을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잘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였으며 교실들마다에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각종 교구비품들을 그흔히 갖추어 놓았을뿐만아니라 원아들이 배운 지식과

원리적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갈수 있도록 실험실들과 실습실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원아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수 있게 인공잔디를 깔 운동장과 실내수영장, 다기능체육관을 멋들여 꾸려놓았으며 원아들이 생활하는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기숙사도 휴양을데없이 건설했다고 말씀하시였다.

학원의 모든 요소요소를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육체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그들을 교육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에서 원아들을 나라의 역근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 하여야

되였다고 금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몇 해 사이에 평양시와 각 도들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중등학원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역시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창조자들과 함께 일을 잘하고있으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나라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초등학교원건설도 당에서 정해준 날짜에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의 모범을 본받아 각 도들에서도 지금 진행하고있는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건설을 더욱더 태양절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이 훌륭히 건설된것만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원아들을 하루빨리 이사시키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그들의 글씨는 모습도 보고 체육경기도 보여주겠다고, 그날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고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원경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계판인 표시하여 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어 원사, 교수, 박사인 김일성종합대학 언 였다. 구사 리원경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편사기자

##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한평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배후에서는 최고모임인, 나이세리아에서는 영화감상회가 6월 23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배후 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수많은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어 인류에게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남기시였다. 또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어 인류 자주위업실현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국가의 각별한 관심속에 행복을 누리는 조선인민의 모습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였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담력과 배짱에 미국은 쫓겨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일성각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의 현실을 배후사람들속에 적극 소개선전할것이다. 주체선전정치연구 배후-조선전선협의회 위원장, 배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 조지장, 배후조선전선문화협회 서기장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미일 주체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을뿐 아니라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절대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직탄하였다. 나이세리아 아프리카대중교혁명령 병원 인사들은 우리 나라 영화 《태양과 꽃 김일성》을 감상하고 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찬양하시고 벽전벽속의 진두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영원 불멸 할 당 건설령도업적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업적 도본회가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대히코에서 6월 10일과 14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시사회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직탄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위대한 김일성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호모심의 반영이다. 김일성각하에서 이룩하신 당건설령도업적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당 제7차대회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 밀케니아 아르마다 맥스프레소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했었다. 김일성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다. 김일성각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로동당이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철했다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신 그이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영원 불멸할것이다. 오늘 김일성각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위업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각하의 강위력한 당으로 위용될것이다. 메히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불멸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대조선압박력을 과감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직탄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6월 22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불멸의 당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52년전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비호활동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의당이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의 영광의 길이었다. 그 길에서 조선로동당은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지닐수 없었던 가장 포속하고 세련된 당, 백전백승의 당, 어머니당의 지위를 지니었다. 이는 전적으로 최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사랑과 인덕의 최고화신인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 김일성동지께서 안아오신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적의 혁명적당, 대중적당건설업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굳건히 담보되게 되였다. 또 한분의 탁월한 명도자를 모시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끌 어오신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며 불멸의 혁명적당, 어머니당, 강철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은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 평양 시 군 민 경 축 대 회 진 행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평양시 군 민 경 축 대 회 진 행

2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를 과감히 벌려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명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신 뜻있는 환희와 격정을 안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는 무한한 궁지와 혁명적업의에 총만된 인민군정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장상공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발판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를 만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들과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둥들이 세워졌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일성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마라 만방에 빛내이자!》,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사회주의강국, 《최후승리》 등의 구호들과 글발을, 조선로동당이, 공화국기가 방정주변 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대회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정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 일꾼들,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사회주의조국을 세우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집동지, 리수용동지, 김경태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박민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조부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은동지, 노병철동지와 김명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내각부총리,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 일꾼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은장군에 영광을》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성동지가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제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대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정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호모와 승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최세의 관솔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무궁영광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조

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총동력, 총매진함대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부역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전총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사건이며 인민군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민이 실현된 민족사적대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만대에 길이 빛날 태양민족의 이 뜻깊은 대사변은 주체조선의 무궁황성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력사의 장엄한 선언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혁명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과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절세의 위인을 당과 국가의 전투에 높이 모신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건당과 온 사회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유익적령도밑에 한결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원일

체로 비유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정치를 반석같이 다져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군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만이 딱 차넘치게 하고 경애하는 최고시령관동지의 유일적명군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를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성스러운 시명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백두산희생정예강군으로 본분히 준비시키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체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청년들은 일심단결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성대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는데는 모험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최후대, 민족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내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평양시 군 민 경 축 대 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존엄과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대국으로, 그 어떤 대적도 밟칠 못하는 필승불패의 군사강국,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빛내여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난 6월 26일부 《로동신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을 제정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발표되었다. 정명은 철천지원미제에 대한 보복적기 최정정에 달하였던 6.25를 계기로 발표된 것으로 하여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세운 동시에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미쳐 날뛰던 적들에게는 커다란 공포를 안겨주었다.

결정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필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둠날의 악소국이 오늘날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므로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려수 없는 자주적인인민으로 엄연히 고집합니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세력으로 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이 무참히 위협당하고있다.

현실은 자체의 강력한 핵무장력이 없는 국가나 민족은 사실상 제국주의에 순종하는 노예이던 《노예》로밖에 살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명도에 의해 태어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이며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렇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로력투입건설

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장의 승기와 전비태세의 예지로 품을 들어 전략군을 마련하시었다.

주체 88(1999)년 7월 3일이 있었으므로 하여 우리 조국은 그 어떤 현우도 감히 밀려들지 못하는 자위의 성새로 더욱 높이 솟아오르게 되었으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불기름이 밀려들지 못할 억연담배를 흔흔히 미련하게 되였다. 하여 첫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맞이하는 이 시각은 나라의 인민군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조국과 민족애를 쌓아올린 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지난해 10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양과 대륙님이 선양과 호기심어린 눈빛들이 주시해본 조선의 열병식은 전세계를 각동시켰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국이 일으키는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다는데 역점을 두시었다. ...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식에서 진행될 열병식에서는 갖가지 무장장비들이 선을 보였다. 열병식을 통하여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막강한 군력을 과시하시었다. ...

결정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은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위하여 갖가지 무장장비들이 선을 보였다. 열병식을 통하여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막강한 군력을 과시하시었다. ...

핵무장을 소탕화, 정밀화된 핵라 적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전략군은 이본분남에도, 남북의 무더위가 한창이던 그날에도 로데트발사훈련장을 찾으며 주체적인 로데트파괴기술과 사적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발사훈련을 철저히 지도해주시고 전략군의 싸움준비와 우리 식의 로데트전법을 적용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헌신과 애교의 그 나날을 떠나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무장장비들이 위용에 대해 생각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절출할을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직접 현지에 나오셔서 판도라로켓 전 부추임부의 대기전제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지도해주시고 정예하는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명도가 남을 위한 결심이다.

지난 6월 23일 우리 인민은 또 하나의 승전소식에 접하였다. 주체조선의 국방력 일대파시,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판도라로켓 《화성-10》시험발사에서 성공!

그러나 그 승전소식보다 천만 군민의 가슴을 더욱 울렸것은 조선로동당 제 7차대 회결정관철을 위한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승리의 불기름을 얼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판도라로켓 《화성-10》시험발사를 깊이

관심하시며 수백리 발길을 달려 발사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였다.

국방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실패에 위촉되고 추우기 들세라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진한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성공으로 이끌어주시신 자신의 로고는 붙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급수선대양공전에서 기동사전을 펼치고 수도 평양에서 최상위대의 영광을 누리도록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시신 노력을 온 나라 인민이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명도의 손길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 어떤 최첨단기술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는, 지구상에 원수들이 어디에 있는 천천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확실한 능

력을 가진 세계최강의 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만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영웅적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침략의 야성은 물론 도처에 널려진 미제침략군기지를 모조리 불바다로 만들어놓을것이다.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잠재적은 핵전쟁 그지이다.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 군대의 인민은 핵공격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갈것이다. 위대한 영토를 받는 군대의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위력은 날을 따라 비상이 강화될것이며 정의의 핵보급에 의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굳건히 수호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 어버이 그 사랑 길이 전하며 날로 흥하는 두메산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지난날 사람 못할 고장으로 불리우던 두메산촌 자강명이 인민의 행복으로 천지개벽되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두메산골인민군을 찾았다.

강계를 떠나 위원군을 거쳐 해발 800여미터 되는 백피령 정점에 오르면 위원군-우봉군 이라고 쓴 경계표석이 우봉의 눈에 안겨졌다. 이따기, 소나무들이 키를 올리는 백피령의 무성할 숲, 비랑소리, 새소리 그 절세있는 두메의 특이한 경치는 길을 쓴 우리의 마음을 절로 상쾌시켰다.

우리를 반겨맞은 군의 일군은 옛날에는 비랑새 사나운 산골이라 하여 고통이라 하였지만 당의 현명한 명도아래 오늘날은 번방도시 부럽지 않은 고장으로 전변되었고 자랑위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천도와 수백리 떨어진곳에 둘러싸인 산골 두메의 이 고장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여있었다.

주체 48(1959)년 1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농업협동조합대의 활황에 봉당리 당원회장을 만나주시고 부식으로 놀았을 생각이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하시며 농사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풍당리농장에서 우리는 수 많은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많은 땅의 알곡을 나라에 바친 애국적 소명을 들을수 있었다. 그리고 신장, 철명령농장에서는 개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농작업을 잘하여 지난해 누에 고치생산에서 최고실적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군이 알곡과 낱새, 누에고치생산에서 해마다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는것은 결코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기후조건이 유리해서도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 대로 부식토성산을 높이고 소목화를 많이 생산하여 효과있게 려용하고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울기질북한비료공장에 들었다.

공장이군은 총칭의 70일전투 기간 한해농사에 쓸 수백리 울기질북한비료생산계획을 끝냈다고 자랑하시었다. 지난해에도 군에서는 저수지에서 500여

의 감장을 실어넣어 화확비료와 진거름을 섞어 울기질비료를 만들었다. 이것은 쓰기 좋고 토파도 높고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군에서는 협동농장마다 소목화생산장들을 꾸려놓고 해마다 토지를 개량하고 누에치기에 도적 리용하고있었다.

산골의 농민들이 범방부럽지 않은 유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도, 신장, 철명령농장이 누에고치생산에서 도적인 분포기단위로 손꼽히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받들었는것이다.

우리는 고원천의 중수형담장 소목도 돌아보았다. 군의 인민들이 고목1호, 2호담장소의 덕을 보고있는에도 우리 수령님의 코나론 은정이 깃들여있었다.

주체 49(1960)년 12월 28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의 활황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간지대에서는 소목화담장을 건설하여 진거름도 보고 땅도 돌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아래 고원천에 담장소목이 일

떠서 군에서는 풍풍, 풍당리협동농장과 군소재지의 모든 세대들에 자체로 생산한 전기를 보내주고있었다.

사회주의성공으로 꾸러진 군소재지도 어버이수령님의 코나론 은정을 전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군에서 자체관리를 개발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렇게 개발된 공업관리가 군생활에 큰 밑천으로 되고있었다.

군에서는 혼한 석회석으로 짙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소목아바드들과 공공건물들, 다리, 도로건설을 총이 크게 내밀었다. 지난해 10월동안에도 군소재지 70동들의 소목아바드들이 일떠섰고 고원천, 철명령의 수백의 구간이 어떤 관목에도 끄떡없는 콘크리트담장이 쌓아졌다. 이른바 아바드, 포수백의 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군문화관, 학생소년회관, 학교관, 관덕전, 국수집 등 공공건물들이 일떠서 군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신장지구엔 년 수백만의 생산능력을 가진 기와공장이 일떠

는 수요를 보장하고있다.

도자기공장에 가면 지방원료를 가지고 만든 독, 화관, 시루 등 갖가지 오지제품들이 대안 자발, 고려약공장에 플러린 효능이 높은 고려약물에 대한 자부심이, 세명도공장에 가니 군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쓰고도 남아서 다른 시, 군들에도 보내주고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고원천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일떠서면 군의 전력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킬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군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산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고있다. 해마다 금리, 참나물, 도토리 등 산나물과 산열매를 대대적으로 채취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로 리용하고 꿀벌의집집을 많이 키우고 파수공을 발전시켜 군생활을 꽃피우고있다.

군의 그 어둠을 돌아보아도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와 애와 가슴뜨거워짐을 감할수 없었다.

우리는 당의 명도아래 더욱 살기 좋고 풍평해질 고향군의 매일을 그려보며 군을 떠났다.

백피령의 봄 세 줄

결정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체혁명위업을 더욱 이어나가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승리와 도덕의리이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한 로인이 평성시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찾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우리도 정중히 인사로 드리고 그 주변관리를 정성스럽게 다스려온 그는 평성시 역전동에서 사는 박은희녀성이였다.

일년 사계절 눈비내리나 찬바람이나 매일 이른새벽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찾는것은 그의 이길수 없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의 바지막은것까지 말은 초소를 최정적으로 지진 전정로명되었던 아비지에게 사죄주의애국학생들을 안겨주도록 해주시고 그 은정을 늘 되새기는 그의 가슴속에는 수령님들의 영령이 높이 받들어모셔갈 중정의 명세가 깊이 뿌리내렸다.

조선인민군 군인이었던 남편

의 부사수, 최고사령부 작식대원이 되어 병사들을 위해 모든지을 바치기던 군인가슴집에도, 시의 고려약공장에서 일할 때에 그 고되고 난로보장을 받고 돌아와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야 할 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건설사업에 앞장서서

평성시 역전동 박은희녀성

두가 힘있게 벌여나가는 소식에 집값을 때었다. 박은희녀성의 마음은 저 멀리 백두산으로 끌려가 달려갔다. 그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그는 가정에서 대지를 비롯한 집집을 영악스럽게 키웠고 여리에게 걸쳐 618전선들까지 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하지만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을줄 공맹을 생각이나 했나.

그렇지않고 보았을 때에 더 좋게, 더 세차게 분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모셔갈 불타는 마음이고 그는 평성시에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풍상을 정중히 모셔둔 그 나날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달려와 들켜대던

들에게 안겨주었으며 두팔을 건어붙이고 그들의 일손을 힘껏 도와주곤 하였다. 뿐만아니라 위생과학자주책지구가 일떠설 때에도 지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른새벽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상가 인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의 사업을 통하여 충정의 결의를 다지고 주변을 정성껏 관리하는 사생활을 하기도 중단하지 않았다.

어느때부터인가 매일 이른 새벽이면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찾는 그를 보고 해당 부분 일군들과 평소년학생들은 새벽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새벽할머니, 그때마다 박은희녀성은 《우리 원수님의 뜻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길이 모시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하고싶은것이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절절히 말하곤 한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령히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성다해 받들어모셔갈 불타는 마음과 함께 평성시에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풍상을 정중히 모셔둔 그 나날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달려와 들켜대던

본사기자 김치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총련일군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년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일 총련일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성을 바치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철계위인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왔다.

미국은 지난 6월 30일 《2016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 데서 온갖 날조자료들을 늘어놓으며 큰담을 우리 공화국을 으스스하게 하려하고있다.

인권유린의 창호이며 인신매매의 대국, 원천국인 미국이 우리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아메리야스 마레우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리제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일군대표단 도착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평양 7월 22일부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인신매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또다시 견고히 견제하고 2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에게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은 지난 6월 30일 《2016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 데서 온갖 날조자료들을 늘어놓으며 큰담을 우리 공화국을 으스스하게 하려하고있다.

인권유린의 창호이며 인신매매의 대국, 원천국인 미국이 우리

### 외국 선 박 선원들의 회고모임 남포항에서 진행

대양이 모셔져있었다.

박나미국적선박 《키야양》호, 《종유57》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주체의 영령인 대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체사상 부지런히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조국을 지켜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체사상 인류자유위업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신 위대한 인민군 장군님을 회고하였다.

《독자의 편지》

박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얼싸고 돌아가던 장성봉선생님과 간호원동무들의 모습을 정말 잊을수가 없습니다.

민일 우리 총리가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무상지표의 해박이 아니었다면, 경에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 평양시 청년학생들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대표단 성원들의 상봉모임 진행

평양시 청년학생들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대표단 성원들이 1일 평양시청년학생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문헌 비서를 비롯한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일군들, 시의 청년학생들과 필라 에프리야스 마레우스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있어도 지구, 평화, 친선의 리념을 세우려는 뜻을 나타내는 정의를 투쟁에서 지지의 면대를 강화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청년중앙에 솔선전대공연을 펼칠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리이 하였다.

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현재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정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명도가 있어 조선의 미래는 더욱 장망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모시고 화목한대담을 이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총리는 이미 다시 태어날수 없었을것입니다. 저의 마음속 격정을 아들이 창작물의 한 대목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 누나가 웃었습니다. 원수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누나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대성구역 풍물동 81인민반 최송남

# 만리대공에 오른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 영원한 승리와 평화의 담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최고리익을 억척으로 수호해 나갈 주체적 힘의 신장과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되는 속에 선군조선은 련속 승리의 통장본을 부르고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에서 승공, 대항양자전지대인의 미제침략군 무리들을 전연적으로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은 보여준다는 가슴부른 소식은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파시는데 장거리로서 우리 군대의 인민, 온 겨레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수습판까지 보우한 부진 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돋아있습니다.》

발사장에 올린 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의 최성적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괴뢰들이 함정하는 《세계와 압박》나중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인 동시에 어떻게 돌파되는 창조와 동시대의 용기와 행보의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부강번영한 통일강국의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환희의 여가이다.

동방의 신진핵강국이 일으킨 정치적 격변들은 국제사회에 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있다. 《유엔에서는 고난도고강발사기술의 파시, 완벽한 도사공》, 《북의 미제압박은 상상 그 이상이며 점점 더 위협해진다》, 《조미비협상의 전략적수단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일대 사변》...

이것이 우리의 위력한 전략탄도로켓들에 대한 동서방의 군사전문가

들의 경탄과 경악의 목소리이다. 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는 우리 조국이 그 어떤 대적도 뚫어줄 수 없는 세계적인 핵강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선언한 역사적사건이며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존엄과 기상, 천만군민의 불굴의 의지와 자력자강정신을 온 누리에 떨친 민족사적대장사이다. 그것은 또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는 미국과 박근혜당에게 상대의 달랑진 전략적지위를 폄하하고 오늘도 중대시점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엄숙한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력한 정의의 힘으로 영원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정세변화의 주도권도, 평화와 안정수호의 보금도 우리의 손에 쥐어져있다.

오늘의 세계정치는 강자들의 무대이며 가장 강력한 언어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무성의한 힘이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일어난 크고 작은 전쟁들의 교훈은 오직 강력한 힘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남조선독재 권력파의 권력투쟁을 사사건건 시비질하고 가로막으면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파놓이 되어 날뛰고 있다. 무성의의 무리들이 《세계》로 그 누구의 승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패배를 살리고있을 때 우리는 원수들이 소스라쳐 놀랄 막강한 자위핵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전략수단을 세계적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완전적인 업적을 쫓고 마저수단의 위력을 펼치지 않았고있다. 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의 성공도 그 한 예이다.

아연실색한 미제는 저들의 미사일 방위체계가 완전히 무용지물로 되었

다고 이마를 치고있다. 적정명에서는 저들이 아무런 대응책도 가지고있지 못하고있다는 가련한 비명만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화성-10》시험발사파괴와 그 성공소식을 조목조목 알지 못하고 허풍소리를 주어설다가 개로망신당 당하였다.

침략의 무리들을 단숨에 굴복시킬 위력적인 전략무기들을 실현해 비례하고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우리 혁명무력들이 지금 원수들을 대대적으로 무찌르기 위해 바늘을 떨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한 정세분석가는 북의 핵공격능력이 다음이 미 행정부에 필할까 큰 부담이 될것이라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공화국이 확보한 강력한 전략적억제력은 이처럼 조미대결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오늘의 이 장대한 현실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명공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이신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조선인민의 지위향상성과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 세계정치정세의 변화발전수준을 예리하게 분석한 세 가지요인이 북조선의 핵무력개발을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명명하게 이끄셨다. 하여 짧은 기간에 우리 공화국을 전지구적 핵강국으로 일떠세우셨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화국과 같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최강의 핵보유국지위에 올라선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무엇한 자주적신념과 혁명적정신, 핵무기의 담력과 배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됨에 따라 우리 주체적인 핵무력건설사업은 세계를 놀라우게 하는 기적적실적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꽃길은 올레의 서막을 수호단의 장엄한 폭음으로

열어제끼고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힘있게 파시하는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웅장적으로 울리시어 세계를 경탄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의 시험발사를 성공으로 이끄시어 동방의 핵대국을 로서의 공화국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은 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명도를 보여주는 기적적사건을 실현해비하는 등 강력한 전략적억제력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특히 단거리미사일 하나만 놓고 보아도 크기는 작지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여 단 한발으로도 도시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것 같다고 하면서 북이 초경량 단거리미사일 하나만 이 정도 이니 중거리미사일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게 남음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인구수에 비하면 10배이고 명도도 80배이던 핵탄두도 20배 이상인 《화성-10》과 단거리 미사일이 최후정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찬란을 감지 못하였다.

당시 남조선정권 미제침략군사령관 도널드 미군은 북의 공격에 매우 위압을 느꼈다고 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공을 자랑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북의 장거리미사일발사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 정부는 《연대보고서》에서 우리가 미국본토의 대부분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나 없었다. 지금도 대양까지 위성본에서는 미국이 최대의 위협에 직면하였다고는 비명만 퍼져나오고 괴뢰정권 지배속에서는 미국도 북의 핵보유가 두려워 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막힌 탄식이 울려오았다.

제방에는 또한 한발 떨어질 없다고 요인장담하던 악의 제국과 그에 붙어살던 가련한자들이 형제 없이 행성에서 사라져버리는 악몽을 이 말하고있다. 부정의 무리들이 정의의 실낱에 걸려나와 최후의 종말을 맞을 시간이 다가오고있다.

60여년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로케트전쟁 보병총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성》을 자랑하고 말하며 무장한 미제침략군과 주저없이 맞서싸워 피를 흘리던 숭양이의 사동들을 분절해놓았다. 일찍이 적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자아내던 핵무의 혁명무력은 지금 어찌와 오늘이 다르다고 오늘과 배일이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강타당되고있다. 조미대결전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했다는 예상은 전쟁소실같은 이야기로 결코 이루어질것이 내외미반의 객관적인 정이다. 세계의 한 지명하는 사람론가가 지적했듯이 앞으로 조미 대결의 전쟁은 《서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선이 한 번 뒤로 가는 강점지역에 미국이 완전히 겨우러지는 통쾌한 광풍으로 덮이게》이라고 찬탄을 감지 못하였다.

《남조선정권 미제침략군사령관 도널드 미군은 북의 공격에 매우 위압을 느꼈다고 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공을 자랑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북의 장거리미사일발사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 정부는 《연대보고서》에서 우리가 미국본토의 대부분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나 없었다. 지금도 대양까지 위성본에서는 미국이 최대의 위협에 직면하였다고는 비명만 퍼져나오고 괴뢰정권 지배속에서는 미국도 북의 핵보유가 두려워 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막힌 탄식이 울려오았다.

제방에는 또한 한발 떨어질 없다고 요인장담하던 악의 제국과 그에 붙어살던 가련한자들이 형제 없이 행성에서 사라져버리는 악몽을 이 말하고있다. 부정의 무리들이 정의의 실낱에 걸려나와 최후의 종말을 맞을 시간이 다가오고있다.

60여년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로케트전쟁 보병총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성》을 자랑하고 말하며 무장한 미제침략군과 주저없이 맞서싸워 피를 흘리던 숭양이의 사동들을 분절해놓았다. 일찍이 적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자아내던 핵무의 혁명무력은 지금 어찌와 오늘이 다르다고 오늘과 배일이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강타당되고있다. 조미대결전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했다는 예상은 전쟁소실같은 이야기로 결코 이루어질것이 내외미반의 객관적인 정이다. 세계의 한 지명하는 사람론가가 지적했듯이 앞으로 조미 대결의 전쟁은 《서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선이 한 번 뒤로 가는 강점지역에 미국이 완전히 겨우러지는 통쾌한 광풍으로 덮이게》이라고 찬탄을 감지 못하였다.

《남조선정권 미제침략군사령관 도널드 미군은 북의 공격에 매우 위압을 느꼈다고 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공을 자랑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북의 장거리미사일발사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 정부는 《연대보고서》에서 우리가 미국본토의 대부분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나 없었다. 지금도 대양까지 위성본에서는 미국이 최대의 위협에 직면하였다고는 비명만 퍼져나오고 괴뢰정권 지배속에서는 미국도 북의 핵보유가 두려워 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막힌 탄식이 울려오았다.

제방에는 또한 한발 떨어질 없다고 요인장담하던 악의 제국과 그에 붙어살던 가련한자들이 형제 없이 행성에서 사라져버리는 악몽을 이 말하고있다. 부정의 무리들이 정의의 실낱에 걸려나와 최후의 종말을 맞을 시간이 다가오고있다.

60여년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로케트전쟁 보병총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성》을 자랑하고 말하며 무장한 미제침략군과 주저없이 맞서싸워 피를 흘리던 숭양이의 사동들을 분절해놓았다. 일찍이 적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자아내던 핵무의 혁명무력은 지금 어찌와 오늘이 다르다고 오늘과 배일이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강타당되고있다. 조미대결전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했다는 예상은 전쟁소실같은 이야기로 결코 이루어질것이 내외미반의 객관적인 정이다. 세계의 한 지명하는 사람론가가 지적했듯이 앞으로 조미 대결의 전쟁은 《서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선이 한 번 뒤로 가는 강점지역에 미국이 완전히 겨우러지는 통쾌한 광풍으로 덮이게》이라고 찬탄을 감지 못하였다.

《남조선정권 미제침략군사령관 도널드 미군은 북의 공격에 매우 위압을 느꼈다고 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공을 자랑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북의 장거리미사일발사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 정부는 《연대보고서》에서 우리가 미국본토의 대부분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조선인민군

배부의 전출원인의 슬하에서 무적의 위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군의 긍지높은 모습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광학이 비상이 강화되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강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의 위원이시며 정권공로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명도로 이복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었으며 오늘 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 아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두고 자주연구 학회 회원들은 《북인민군과 전투 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인민군대

##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조선인민군

배부의 전출원인의 슬하에서 무적의 위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군의 긍지높은 모습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광학이 비상이 강화되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강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의 위원이시며 정권공로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명도로 이복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었으며 오늘 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 아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두고 자주연구 학회 회원들은 《북인민군과 전투 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인민군대

##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조선인민군

배부의 전출원인의 슬하에서 무적의 위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군의 긍지높은 모습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광학이 비상이 강화되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강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의 위원이시며 정권공로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명도로 이복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었으며 오늘 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 아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두고 자주연구 학회 회원들은 《북인민군과 전투 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인민군대

##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조선인민군

배부의 전출원인의 슬하에서 무적의 위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군의 긍지높은 모습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광학이 비상이 강화되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강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의 위원이시며 정권공로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명도로 이복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었으며 오늘 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 아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두고 자주연구 학회 회원들은 《북인민군과 전투 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인민군대

##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조선인민군

배부의 전출원인의 슬하에서 무적의 위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군의 긍지높은 모습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광학이 비상이 강화되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강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의 위원이시며 정권공로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명도로 이복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었으며 오늘 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 아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두고 자주연구 학회 회원들은 《북인민군과 전투 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인민군대

##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조선인민군

배부의 전출원인의 슬하에서 무적의 위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군의 긍지높은 모습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광학이 비상이 강화되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강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의 위원이시며 정권공로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명도로 이복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었으며 오늘 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 아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두고 자주연구 학회 회원들은 《북인민군과 전투 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인민군대

##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조선인민군

배부의 전출원인의 슬하에서 무적의 위력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의 단결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인민군의 긍지높은 모습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광학이 비상이 강화되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강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들의 위원이시며 정권공로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명도로 이복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었으며 오늘 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명장들의 손길 아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두고 자주연구 학회 회원들은 《북인민군과 전투 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인민군대

##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대 변 인 대 답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이 6월 30일 유엔안보리사회 의 중앙거리전략탄도로켓시 실험사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대 변 인 대 답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이 6월 30일 유엔안보리사회 의 중앙거리전략탄도로켓시 실험사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대 변 인 대 답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이 6월 30일 유엔안보리사회 의 중앙거리전략탄도로켓시 실험사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대 변 인 대 답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이 6월 30일 유엔안보리사회 의 중앙거리전략탄도로켓시 실험사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대 변 인 대 답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이 6월 30일 유엔안보리사회 의 중앙거리전략탄도로켓시 실험사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대 변 인 대 답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이 6월 30일 유엔안보리사회 의 중앙거리전략탄도로켓시 실험사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대 변 인 대 답 유엔안보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이 6월 30일 유엔안보리사회 의 중앙거리전략탄도로켓시 실험사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 남을 결코 들 제면이 있는가

외세와 약함하여 반공화국 《인민》 조막소동에 미쳐달리던 남조선괴뢰당국이 위풍수속 되게 얻어맞았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존권을 위한 공무원로직과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사유가공들의 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괴뢰조선 《인민》 지위에 관한 법률》을 폭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고 있다. 저들의 반인권적책임을 달랑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에 발표되자 괴뢰정권세력은 원통에 미친게 뒤듯 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그야말로 개미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북인민》이 어찌나 커다란 하며 동족을 버려달라니 절로절로 남조선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인권유린책임을 폭로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 발표로 세계면전에서 깨닫고있다.

그렇습니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세계적의 인권불보도, 인권장악을 오명을 떨치고있다. 이번에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남조선정권세력이 저지른 반인권적의 악극이 일부는 지나치지 않는다.

《유신》부세자의 피를 이온 현 남조선집권자는 파리의 괴뢰보수세력들 고소관히 괴뢰당국에서 그에 의거하여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할새했다.

## 남을 결코 들 제면이 있는가

외세와 약함하여 반공화국 《인민》 조막소동에 미쳐달리던 남조선괴뢰당국이 위풍수속 되게 얻어맞았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존권을 위한 공무원로직과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사유가공들의 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괴뢰조선 《인민》 지위에 관한 법률》을 폭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고 있다. 저들의 반인권적책임을 달랑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에 발표되자 괴뢰정권세력은 원통에 미친게 뒤듯 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그야말로 개미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북인민》이 어찌나 커다란 하며 동족을 버려달라니 절로절로 남조선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인권유린책임을 폭로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 발표로 세계면전에서 깨닫고있다.

그렇습니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세계적의 인권불보도, 인권장악을 오명을 떨치고있다. 이번에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남조선정권세력이 저지른 반인권적의 악극이 일부는 지나치지 않는다.

《유신》부세자의 피를 이온 현 남조선집권자는 파리의 괴뢰보수세력들 고소관히 괴뢰당국에서 그에 의거하여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할새했다.

## 남을 결코 들 제면이 있는가

외세와 약함하여 반공화국 《인민》 조막소동에 미쳐달리던 남조선괴뢰당국이 위풍수속 되게 얻어맞았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존권을 위한 공무원로직과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사유가공들의 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괴뢰조선 《인민》 지위에 관한 법률》을 폭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고 있다. 저들의 반인권적책임을 달랑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에 발표되자 괴뢰정권세력은 원통에 미친게 뒤듯 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그야말로 개미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북인민》이 어찌나 커다란 하며 동족을 버려달라니 절로절로 남조선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인권유린책임을 폭로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 발표로 세계면전에서 깨닫고있다.

그렇습니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세계적의 인권불보도, 인권장악을 오명을 떨치고있다. 이번에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남조선정권세력이 저지른 반인권적의 악극이 일부는 지나치지 않는다.

《유신》부세자의 피를 이온 현 남조선집권자는 파리의 괴뢰보수세력들 고소관히 괴뢰당국에서 그에 의거하여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할새했다.

## 남을 결코 들 제면이 있는가

외세와 약함하여 반공화국 《인민》 조막소동에 미쳐달리던 남조선괴뢰당국이 위풍수속 되게 얻어맞았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존권을 위한 공무원로직과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사유가공들의 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괴뢰조선 《인민》 지위에 관한 법률》을 폭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고 있다. 저들의 반인권적책임을 달랑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에 발표되자 괴뢰정권세력은 원통에 미친게 뒤듯 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그야말로 개미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북인민》이 어찌나 커다란 하며 동족을 버려달라니 절로절로 남조선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인권유린책임을 폭로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 발표로 세계면전에서 깨닫고있다.

그렇습니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세계적의 인권불보도, 인권장악을 오명을 떨치고있다. 이번에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남조선정권세력이 저지른 반인권적의 악극이 일부는 지나치지 않는다.

《유신》부세자의 피를 이온 현 남조선집권자는 파리의 괴뢰보수세력들 고소관히 괴뢰당국에서 그에 의거하여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할새했다.

## 남을 결코 들 제면이 있는가

외세와 약함하여 반공화국 《인민》 조막소동에 미쳐달리던 남조선괴뢰당국이 위풍수속 되게 얻어맞았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존권을 위한 공무원로직과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사유가공들의 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괴뢰조선 《인민》 지위에 관한 법률》을 폭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고 있다. 저들의 반인권적책임을 달랑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에 발표되자 괴뢰정권세력은 원통에 미친게 뒤듯 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그야말로 개미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북인민》이 어찌나 커다란 하며 동족을 버려달라니 절로절로 남조선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인권유린책임을 폭로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 발표로 세계면전에서 깨닫고있다.

그렇습니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세계적의 인권불보도, 인권장악을 오명을 떨치고있다. 이번에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남조선정권세력이 저지른 반인권적의 악극이 일부는 지나치지 않는다.

《유신》부세자의 피를 이온 현 남조선집권자는 파리의 괴뢰보수세력들 고소관히 괴뢰당국에서 그에 의거하여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할새했다.

## 남을 결코 들 제면이 있는가

외세와 약함하여 반공화국 《인민》 조막소동에 미쳐달리던 남조선괴뢰당국이 위풍수속 되게 얻어맞았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존권을 위한 공무원로직과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사유가공들의 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괴뢰조선 《인민》 지위에 관한 법률》을 폭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고 있다. 저들의 반인권적책임을 달랑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에 발표되자 괴뢰정권세력은 원통에 미친게 뒤듯 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그야말로 개미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북인민》이 어찌나 커다란 하며 동족을 버려달라니 절로절로 남조선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인권유린책임을 폭로하던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 발표로 세계면전에서 깨닫고있다.

그렇습니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세계적의 인권불보도, 인권장악을 오명을 떨치고있다. 이번에 유엔인권리사회가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남조선정권세력이 저지른 반인권적의 악극이 일부는 지나치지 않는다.

《유신》부세자의 피를 이온 현 남조선집권자는 파리의 괴뢰보수세력들 고소관히 괴뢰당국에서 그에 의거하여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할새했다.

## 남을 결코 들 제면이 있는가

외세와 약함하여 반공화국 《인민》 조막소동에 미쳐달리던 남조선괴뢰당국이 위풍수속 되게 얻어맞았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존권을 위한 공무원로직과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사유가공들의 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괴뢰조선 《인민》 지위에 관한 법률》을 폭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고 있다. 저들의 반인권적책임을